

담론의 새로운 지평 여는 비평집들

생태비평 · 페미니즘비평 등 다양한 담론 생산돼...
소장 비평가들의 공격적 비평 눈에 띄어

1990대 중반 이후 기존의 비평 담론과는 구분되는 다양한 비평 담론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생태주의 비평이 급부상했으며, 새로운 방법론과 시각으로 무장한 페미니즘 비평도 선보였다. '권력화' 한 비평가들을 공격한 소장 비평가들의 논쟁적인 비평집도 눈에 띄었다. 대중문화와 대중문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문학의 진정성을 강조한 비평집, 텍스트에 대한 꼼꼼한 분석에 천착한 비평집도 생산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비평계는 다양한 분야로 축수를 뻗는다. 이 시기 생태주의 비평, 페미니즘 비평, 권력 비평, 사회문화비평 등 기존의 비평 담론과는 구분되는 다양한 비평담론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소장비평가들의 공격적인 비평이 비평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중진을 포함한 노장들의 정밀한 독해에서 비롯된 평문들도 양산됐다.

생태비평 급부상해

최근 몇년간 비평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적색에서 녹색으로'였다. 환경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날로 심각해지자 환경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990년 문예지에 발표됐던 김지하의 <생명과 환경>, 김성곤의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로 부각된 생태학적 비평의 관심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마르크시즘의 퇴조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천년대 들어와 그 성과들이 단행본으로 묶여 속속 출간됐다.

김옥동 교수의 평론집 <시인은 숲을 지킨다>(범우사)는 그의 앞선 두 저작 <문학 생태학을 위하여>(민음사)와 <한국의 녹색 문화>(문예출판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책이다. <문학 생태학...>과 <한국의...>가 '문화 생태학' 이론을 체계화하고 이의 관점에서 문화현상을 읽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시인은 숲을 지킨다>는 실제 문학 작품을 "녹색의 눈"에 맞춰 읽어낸 책이다. 이윤기의 <나무가 기도하는 집>(민음사)과

김영래의 <숲의 왕>(문학동네)을 집중 분석하면서 생태 급진주의나 에코-파시즘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가한다.

최동호 교수의 <디지털 문화와 생태시학>(문학동네) 역시 우리 시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는 비평집이다. 시 비평의 현장에서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비평을 꾸준히 선보였던 최교수는 "생태문학이 지나치게 현장적이고 소재적이며 산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통 사상과 현대의 생태 문학론을 긴밀하게 접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학작품이 아닌 도시라는 텍스트를 비평의 도마 위에 올린 책도 있다. 김우창 교수와 양운재 교수 등 25명의 각계 전문가가 쓴 글을 묶은 <21세기의 환경과 도시>(민음사)가 그것으로, 한국의 공간 환경을 비평한 책이다. 도시의 삭막함에서 남성 우월주의와 비뚤어진 가족 이기주의가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진솔한 삶의 세계'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신복룡, 실천문학사), <생태주의 시학>(장경렬, 한국문화사),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시학>(송용구, 시문학사) 등이 있다.

페미니즘 비평의 가능성 보여주는 비평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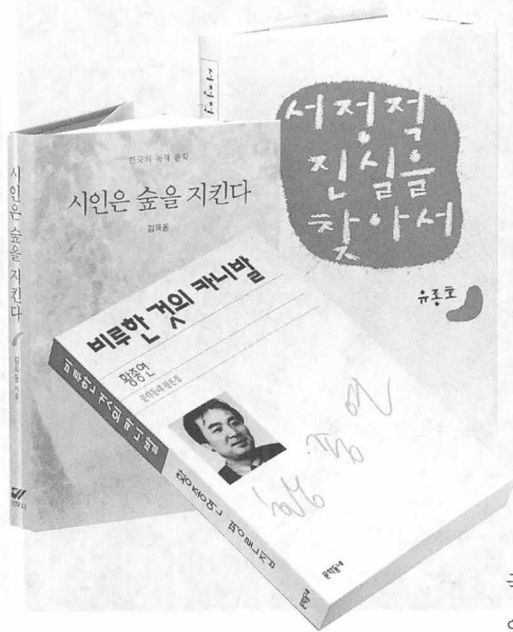
1980년대 말 한국 문학에서 페미니즘 문학이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은 '르네상스'를 맞았다. 이 시

기 들어 페미니즘 비평은 한층 조직화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과거 '페티코트를 입은 하이에나'로 불리며 여성의 권리를 절규하던 비평과는 달리 남녀간의 '차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여성의 생명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에코 페미니즘, 젠더 이론에 입각한 페미니즘 비평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도 이 시기다.

한길사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시리즈 세번째 권인 한국문학연구회의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는 오정희, 박완서, 최 윤, 공지영, 은희경 등 현시대 대표적인 여성 작가 13명의 작가론을 모은 책이다. 편자들은 "90년대 여성문학의 부흥은 '여성들만의 리그'에 불과했으며, 그래서 언제라도 반대여건만 조성되면 추락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었다고 그간의 페미니즘 비평에 대해 반성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광기' '모녀관계' '모성' '여성 생태학' '실존과 자아에 대한 탐구' 등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동원해 논의를 펼쳐나가고 있다.

황도경씨의 <우리 시대의 여성작가>(문학과지성사) 역시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분석한 비평을 묶은 책이다. 지은이는 박완서, 최 윤, 양귀자, 전경린, 신경숙, 배수아, 한 강, 송경아 등 여성 작가 9명의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여성 작가들의 꿈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확인이라는 문학 본연의 꿈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페미니즘을 전면내 내세우지 않고 텍스트의 섬세한





사)는 기본적인 작품 이해조차 선행돼 있지 않는 문학비평의 그릇된 형태를 꼬집고 있다. 유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 시편에 대한 구심적 경의에 바탕한 견고한 해석이요 이해이다”고 강조하면서 “엄정한 비판정신을 잃고 박수를 보내는 비평적 관행이 문학의 자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황중연 교수의 《비루한 것의 카니발》(문학동네) 역시 작품에 대한 꼼꼼한 독해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교수는 윤대녕, 신경숙, 구효서, 은희경, 백민석 등의 작품 분석을 통해 한국문학의 상상력이 기성 문화의 질서 및 구태의 연합에 반기를 드는 ‘카니발’이라고 이름 붙인다.

문학의 진정성 회복과 함께 대중문화와 대중문학에 대한 적극적 관심, 그리고 디지털 시대와 문학과의 관계에 천착한 비평집도 있다. 김병익의 《새로운 글쓰기와 문학의 진정성》(문학과지성사)은 1990년대에 나타난 한국문학의 변화 실상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문학의 진정성 확보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한국문학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장인정신’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연 교수의 《디지털 욕망과 문학의 현혹》(문이당)은 세기말과 세기초의 경계에서 비평가가 느끼는 불안과 희망을 고백하면서, 대중문화 시대의 대중문학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중화·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열리는 감동의 세계는 어떠한가.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 마모돼 가는 인간적 진실은 무엇인가를 문학은 대중 독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야 한다. 또 문학 평론이나 이론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문학 감동의 회로를 모색해야만 된다”고 말하면서 대중문화시대의 대중문학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소장 비평가들의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비평집들도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명원의 《타는 혀》(새움)를 필두로 권성우의 《비평과 권력》(소명출판), 홍기돈의 《페르세우스의 방패》(백의)가 그것이다. 이 비평집들은 비평계의 거장들과 선배 비평가들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명원의 《타는 혀》는 우리 문학비평사의 거장이라 불리는 김 현, 김윤식, 백낙청, 임 화의 비

평을 비판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김 현의 세계관, 시론, 소설론, 세대 담론, 언어의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김 현 사후 이뤄진 그의 비평에 대한 특권화와 신비화를 비판적 어조로 공격한다. 김윤식 교수의 ‘표절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교수의 비평을 ‘현해탄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백낙청 초기 비평에 대해 “상당 정도의 논리적 파탄을 보여주고 급진적 전통단절론”으로 요약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소장 비평가들의 논쟁적인 비평집들

최근 몇 년간 문단을 비롯한 지식계를 뜨겁게 달군 최대의 이슈는 ‘권력 논쟁’이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지식인들과 비평가들이 참여한 이 논쟁은 문학과지성사 권력 논쟁, 《조선일보》와 문학동네 관련 논쟁, 평론가 <고 김 현 선생 추모의 밤>의 여러 에피소드를 낳았다.

《비평과 권력》은 제목처럼 권력과 글쓰기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비평집이다. 권교수는 비평적 글쓰기는 원천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글쓰기가 권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기, 편지, 대화문 등의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비평방법론도 모색하고 있다.

《페르세우스의 방패》는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한국의 문단 현실과 논의의 모습에 대한 지은이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에세이적 문체로 대중문화와 사회 제반 문제를 파헤친 비평집도 속속 출간됐다. 이성욱의 《리베로를 꿈꾸는 비평》(문학과학사)은 미국, 간첩, 검열, 베스트셀러, 여자의 눈길, 경마장, 카바레, 신촌과 같은 것들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 스포츠를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읽어 내린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이동연 외)는 본격적인 스포츠 문화 비평서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상적 파시즘에 확대경을 들이댄 임지현 교수의 《우리 안의 파시즘》, 김우창 교수가 펴낸 정치사회 비평집 《정치와 삶의 세계》(이상 삼인), 학벌주의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한 김동훈 교수의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책세상) 등이 있다.

— 최갑수 기자

읽기를 통해 여성 소설 속에

그러진 여성적 삶의 의미를 세밀하게 조명했다.

송명희의 《페미니스트, 남성을 말하다》(푸른사상)는 이제까지의 여성학이 남성을 적대자, 가해자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면서, 남성들도 피해자며, 사회를 함께 변혁시켜 가야 할 동반자라고 말한다. ‘친페미니즘적 남성학’의 입장에서 씌어진 <현대시에 나타난 남성 의식> <TV광고에 나타난 남성문화> 등이 실려 있다.

고미숙씨의 《비평기계》(소명출판)는 고전문학 연구자인 지은이가 현대문학을 대상으로 비평에 ‘메스’를 댔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책이다. 문단의 파시즘적 경향을 지적한 글들과 함께 은희경·신경숙·공지영 등의 소설에 나타난 왜곡된 여성성에 대해 비판을 가한 글들이 실려 있다. 신경숙의 소설에 대해 “슬픔의 과장된 포즈, 그리고 고통의 기억을 통한 자기연민의 미학이라는 멜로의 틀을 변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양귀자의 《모순》(살림)과 은희경씨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창작과비평사)는 나란히 “냉소적 사랑의 불모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학의 진정성 탐구한 비평집들

비평에 대한 비평과 반성을 전제로 하면서 작품의 내적 이해에 충실한 비평집들도 2천년대 들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최근 출간된 몇권의 비평집들은 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정치한 분석을 바탕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유종호 교수의 《서정적 진실을 찾아서》(민음